

강진 초등생 연쇄실종 유력 용의자 찾았다

19년전 미제사건... 15년 수감후 2017년 출소 40대 다른 범죄로 구속 중 200쪽 압호노트에 어린 여성 변태성 등 기록...공소시효 검색도 확인 전남경찰, 주요 단서 다수 확보...직접증거 찾으려 형사팀서 수사 계속

경찰이 2000·2001년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강진 여자초등학생(김성주·김하은) 연쇄실종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광주일보 2018년 7월 4일자 6면)는 보도와 관련, 전남경찰청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의자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2000·2001년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강진 여자초등학생(김성주·김하은) 연쇄실종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광주일보 2018년 7월 4일자 6면)는 보도와 관련, 전남경찰청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의자는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당히 지능이 뛰어난 인물로 추정되며, 아동에 대한 성욕구가 강하고, 아동 포르노물 등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선 목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죄혐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김성주·김하은양이 실종됐던 2000·2001년 당시 광주의 모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부모 집이 있는 강진을 수시로 오고 갔으며, 범죄 발생 직후 강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던 전남경찰은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미스터리' 보도(광주일보 2008년 3월 17일 7면) 이후 같은 해 장기 실종 어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점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와 목격자, 용의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진행했으며, 실종 아동들이 학교 인근에서 대낮 하룻길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주요 통행로와 상가 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탐문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같은 10여년에 걸친 장기수사를 통해 지난해 초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등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소 후 작성한 압호노트엔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A씨는 김성주·김하은양이 실종됐던 2000·2001년 당시 광주의 모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부모 집이 있는 강진을 수시로 오고 갔으며, 범죄 발생 직후 강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수사성과를 내지 못하던 전남경찰은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미스터리' 보도(광주일보 2008년 3월 17일 7면) 이후 같은 해 장기 실종 어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점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수집한 각종 증거와 목격자, 용의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진행했으며, 실종 아동들이 학교 인근에서 대낮 하룻길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주요 통행로와 상가 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탐문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같은 10여년에 걸친 장기수사를 통해 지난해 초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등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소 후 작성한 압호노트엔 김성주·김하은양 실종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김성주양



김하은양

건 유력 용의자를 확정할 수 있는 주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2000년 초 1년 새 연이어 발생한 강진 여자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사건이다.

지난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경 강진 동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성주(당시 8세) 양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를 기다리던 중 실종됐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양

의 부모는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딸이 사라진 강진에서 지내고 있다. 김양이 실종된지 356일째인 2001년 6월1일 오후 1시 30분께 강진 중앙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던 김하은(당시 6세)양도 사라졌다.

김양은 이날 같은 반 친구 A군과 학교 후 집에서 3분 거리인 여교 입구 횡단보도까지 함께 걸어갔다. 이후 A군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고, 혼자 남은 김양은 실종됐다.

실종된 초등생 2명은 ▲저학년의 여자 아이라는 점 ▲6월 대낮 하룻길에 혼자있다 사라졌다는 점 ▲아이 부모에게 어떠한 금품 요구나 전화 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 등 유사점이 많았지만,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종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정시모집 실기고사

16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진 2019학년도 정시모집 예체능계 실기고사에서 사범대 체육교육과 수험생들이 유연성 테스트 중 하나인 체전굴(體前屈) 측정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

알츠하이머라 재판 출석 못한다더니... 멀쩡하게 골프 친 전두환

지난달에도 골프장에서 목격

고(故) 조보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하며 두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비판 논평을 내고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서 세울 것을 촉구했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골프장 한 직원은 "전씨가 지난해 여름쯤 우리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 골프장의 다른 직원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씨가) 지난해까지 우리 골프장에 다닌 것은 맞다"고 했다.

지난달 6일에도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같은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님 김모(51)씨는 "식당에 갔더니 전두환, 이순자, 여성 한명, 남성 한명 이렇게 네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전씨를 목격했다는 이모(50)씨는 "화장실 갈 때는 (전씨가) 바

로 앞에 있었으니까,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다.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뒤에서 라운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어다니며 골프를 쳤고 건강 문제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젊어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골프장은 평소 전씨가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대표는 2년 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골프 동호회를 통해 한달에 한번 정도 라운드를 같이한다"며 "(전씨가) 나보다 평균 20~30야드 거리가 더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보도를 지켜본 국민은 큰 충격을 넘어 전씨가 정정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역사의 죄인인 전씨를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시켜 그가 뿌린 죄악의 역사에 대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은 세계 의학계에 희귀사례로 보고될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간부 징역 6년 선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19억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간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전기철)은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노조 간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끼치게 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황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29명에게 각각 3000만~1억5000만원씩 총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임직원 할인으로 차를 싸게 사 주겠다"라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과 회사 직원들에게 7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7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해 7월 여수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황씨에게 원통을 구해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현직 경찰관 김모(47) 경정도 기소됐다. /김영희 기자 young@연합뉴스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서 또 쇠망치 추정 이물질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또다시 쇠망치로 추정되는 이물질(사진)이 발견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이물질은 지난 2017년 8월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물질을 지난 20여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 합동조사단의 한 위원은 "지역 주민들이 1990년 초부터 3·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부실공사를 주장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영광=이준원 기자 jylee@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1일 한빛 3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이하 CLP) 전수검사를 통해 CLP 10단에서 두께가 얇아진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를 절단한 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이물질(소형망치, 헤드 길이 약 10cm, 직경 약 3~4cm, 자루 포함 전체 길이 약 30cm)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건설 당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망치를 제거한 후 콘크리트 및 내부철판(CLP)을 보수할 예정이며 발전소 안전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귀국 의사 전달...입국 여부 관심

○20억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입국 여부에 관심.

○16일 충북 제천경찰에 따르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 신모(61)씨 부부 대리인인 A 변호사가 경찰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 금액과 명

단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변호사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신씨 부부가 변호사를 통해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 출석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young@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